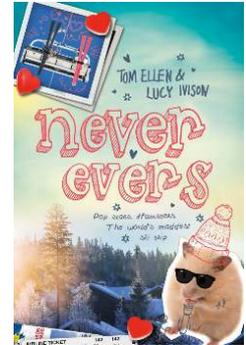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NEVER EVERS  
가제 : 절대 그럴 리 없어  
저자 : Tom Ellen, Lucy Ivison  
출판사: Simon Puls Chicken House Ltd  
발행일: 2016년 1월 7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유럽 각지 침대들이 몰려드는 2월의 스키 캠프, 하얀 슬로프 위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일들

학교에서 단체로 떠나는 스키 캠프 당일, 열네 살 소녀 마우스는 집안 욕실에 문을 잠그고 틀어 박혔다. 마음 같아서는 그 상태로 욕실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을 만큼 캠프가 너무 가기 싫어서다. 차가운 타일에 머리를 기댄 채, 마우스는 그 어느 때보다 자세하게 욕실 안 물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문 바로 바깥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 정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이제 다 큰 애를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냐고 차분하게 말하는 엄마. 그러면서도 단체 캠프에 안 가면 거기서 일어난 온갖 사건이며, 소문이며 애깃거리를 다 놓치게 되니 학교에서 완전히 고립된다고 은근히 협박하신다. 하지만 마우스는 아무 상관도 없다. 같이 놀 친구도 없다. 기억이 안 날 만큼 아주 어릴 때부터 마우스가 알고 지낸 코니는 다른 친구들보다 이상하다고 놀릴 만큼 좀 이상해졌기 때문이다. 마우스도 2년쯤 전부터 웬지 코니가 싫어졌고, 엄마가 전화를 걸어보라는 로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마우스는, 도무지 캠프에 가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우스는 이 여행이 엄마 탓도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무조건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결국 마우스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선다.

같은 시각, 잭도 학교에서 빌린 버스에 올라 토디, 맥스와 항상 단체 여행을 갈 때마다 앞의 단골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선생님이 계신 앞 좌석 쪽에 붙어 있을 만큼 아주 모범생도 아니고, 축구팀 소속 남학생들이며 온갖 '사이코'들이 모여 다른 아이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맨 뒷 좌석에 있을 만큼 말쑥을 부리거나 특이하지도 않은 세 남학생들이었다. 딱 그 성격에 맞게 자리도 버스 딱 중앙쯤이 고정석이 됐다. 잭의 옆에 앉은 맥스는 과자를 입에 물고 우물거리며, 이번 여행에서 스키든 스노보드든 우선 순위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잡아 선언한다.

죽지 못해 캠프에 온 여학생과 똑같이 생긴 연예인과 역할을 바꾼 남학생, 둘의 묘한 사랑

이번 여행에서 신나게 즐겨야 할 것? 세 번째가 스키고, 두 번째는 볼꽃 놀이고, 첫 번째는 바로 여학생들이라는 맥스의 설명이 이어진다. 전혀 관심 없어하는 토디에게 맥스는 크게 핀잔을 주면서, 매년 2월에 대부분의 학교가 계획하는 이런 여행에서는 프랑스에서 온 여학생들이며 독일, 영국 등 온갖 국적의 여학생들을 만나볼 절호의 기회라고 장황하게 설명한다. 잭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어째 귀가 솔깃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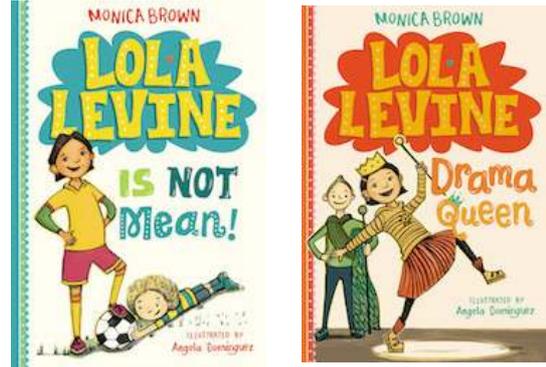
마침내 캠프장에 도착한 잭과 친구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놀라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다. 프랑스 십대 아이들에게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 롤랜드도 캠프에 온 것이다. 게다가 실물을 보니 롤랜드는 잭과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그 사실을 깨달은 잭과 롤랜드. 연예인 생활에 지친 롤랜드는 잭에게 역할을 바꿔보자고 제안하고, 잭은 고심 끝에 한 번 해보기로 한다. 그렇게 롤랜드로 위장한 상태에서 발레를 전공한다는 마우스를 만난 눈에 반해버린 잭은 정체를 숨긴 채 마우스에게 마음을 고백해버린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 버렸다. 유명 스타로부터 고백을 받은 줄 알고 있는 마우스가, 자신이 그저 평범한 남학생에다 거짓말로 정체를 꾸민 사실까지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귀여운 두 소년소녀의 아기자기한 사랑과 십대 아이들의 일상을 재미 있게 그린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탐 엘렌(Tom Ellen)은 기자로 <ShorList>, <Time Out> 등 다양한 매체에 기사를 기고하고 있다.

루시 아이비슨(Lucy Ivison)은 학교 사서 교사로 일하면서 온라인에서 십대들을 위한 잡지 <Whatever After>를 발행하고 있다. 탐과 함께 『Lobsters』를 발표하여 영국 'YA 도서상' 수상 후보에 올랐다.

제목 : LOLA LEVINE SERIES  
가제 : 롤라 르빈 시리즈  
저자 : Monica Brown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5년 11월 3일 (1권) /  
2016년 1월 5일  
분량 : 96 페이지 (1, 2권)  
장르 : YA 소설



### 유대인과 페루인의 피가 흐르는 개성 만점 혼혈아 롤라의 엉뚱하고 기발한 학교 생활

피부색이 서로 다른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롤라 르빈. 다른 아이들과 다른 독특한 외모에 축구와 글쓰기를 사랑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 롤라의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활약상을 그린 시리즈다. 화가인 아빠, 작가인 엄마에게서 누구보다 뛰어난 창의력을 물려 받은 롤라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두 가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꾸린 가정담게 롤라 네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언어, 페루의 고유한 언어 표현까지 색다른 말과 문화도 함께 접할 수 있다.

#### 1권. 난 나쁜 애가 아니야(Is Not Mean)

축구를 제일 사랑하지만 스포츠라면 뭐든 좋아하는 롤라는 친구들 사이에서 말괄량이로 소문이 자자하다. 어느 날, 방과 후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롤라는 의도치 않게 같은 반 친구인 후안 고메즈를 다치게 만든다. 절대 고의가 아니었고, 경기를 하다가 너무 몰두하다 보니 생긴 사고일 뿐인데, 그 때부터 친구들은 롤라를 못된 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또 누가 다칠 수도 있다며 더 이상 축구에 롤라를 끼워주지 않으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친구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까? 기분이 엉망 진창이 된 롤라. 하지만 가족들과 가장 절친한 친구인 조쉬의 열렬한 응원과 도움 덕분에, 롤라는 초등학교 2학년 학교 생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조금씩 배워간다. 유머와 말의 힘을 깨달은 것이다. 늘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일기장에 털어놓는 일이 익숙했던 롤라에겐 가장 어울리는 해답이었다. 절반은 유대인, 절반은 페루인의 피가 흐르는 개성 만점 매력적인 롤라가 친구들과 겪는 갈등을 통해 어떤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또 어떤 말이 돌아선 마음들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배워가는 과정이 귀엽고 재미나게 그려진다.

#### 2권. 연극의 여왕(Drama Queen)

롤라 네 반이 연극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배운 다음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다른 학생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로 한다. 배역을 정하는 오디션 당일. 축구장에서는 누구도 쫓아올 사람이 없을 만큼 날쌔게 달리고 뛰어난 축구 실력을 자랑하는

를라지만 무대에 올라가니 얼음처럼 굳어 버렸다! 극심한 무대공포증 때문에 덜덜 떨다가 준비한 대사도 제대로 못한 를라에겐 결국 '다람쥐 2'라는 형편 없는 역할이 주어졌다. 심지어 대사도 한마디 없는 역할이다! 그런데 크게 실망한 를라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리고 를라는 '다람쥐 2'에 자신만의 매력을 모두 불어넣어 관객 모두가 제대로 기억하는 역할로 만드는데 성공한다.

#### <저자 소개>

모니카 브라운(Monica Brown)은 『Waiting for the Biblioburro』 등 여러 편의 아동 도서를 발표하고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